광주체육중 사격 소년체전 '금 명중'

박지민 50m 권총 우승 등
금 1·은 1·동 2개 수확

광주 체육중 사격부. 왼쪽부터 최창용 감독 교사, 최태빈·박지민·최정빈·조은준 선수, 한주원 지도자.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체육중학교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선전했다.

28일 광주체육중학교에 따르면 광주체육중 사격부는 최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37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겸 제5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박지민은 이번 대회에서 중학생답지 않은 차분한 경기력으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 사격 유망주로 떠올랐다.

박지민(2년)은 50m 권총 개인전에서 524점을 쏘아 497점에 그친 2위 정선중을 27점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지민은 10m공기권총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따냈다.

최정빈(3년), 박지민·최태빈(이상 2년), 조은준(1년)은 10m공기권총 단체전에서 1662점을 쏴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지환(1년)은 50m복사소총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체육중 김제안 교장은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 모두가 금메달리스트"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국체전 광주시선수단 해단식 광주시체육회는 28일 국민생활관 세미나실에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광주시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검도, 사격, 야구소프트볼, 핀수영, 체조, 농구, 소프트테니스, 에어로빅힙합 등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 포상금을 받았다. 사격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수립한 김정현, 오준서, 최대한, 황의혁(이상 광주체고)은 기념패와 포상금을 받았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전남파크골프, 협회장기 포섬경기 준우승

전남파크골프 선수들이 제11회 대한파크골프협회장기 전국파크골프대회 및 제1회 왕중왕전 포섬경기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8일 전남파크골프협회(회장 김정기)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화천파크골프장에서 폐막한 대회 개인전 왕중왕전 포섬경기에서 심안만(목포 비파클럽)·정월자(담양클럽)조가 2위에 올랐다.

포섬(foursome) 경기는 골프종목 매치플레이 가운데 하나로 각 팀당 2명의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공 한 개를 번갈아 친다.

심안만은 개인전 남자부에서 5위로, 정월자는 여자부 7위로 왕중왕전 출전기회를 잡았다.

김정기 전남파크골프협회장은 "전남 파크골프 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둠으로써 전남파크골프의 경기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전남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사기 진작,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 고취 등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낳았다"고 평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8일 열린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2차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휴스턴의 알투베가 7회말 솔로 홈런을 치고 득점한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회 빅이닝' 휴스턴, 애틀랜타 제압

MLB 월드시리즈 1승 1패

미국프로야구(MLB)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강점인 타선의 응집력을 살려 월드시리즈 전적을 원점으로 돌렸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휴스턴은 2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미닛메이드파크에서 끝난 월드시리즈(7전 4승제) 2차전에서 내셔널리그 챔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7-2로 눌렀다.

시리즈 전적 1승 1패를 올린 두 팀은 장소를 애틀랜타의 홈인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트루이스트 파크로 옮겨 30일부터 3~5차전을 치른다.

지난해까지 116차례 치러진 월드시리즈가 1승 1패로 진행된 경우는 60번 있었다.

이 중 1차전을 내주고 2차전을 이긴 팀이 우승한 확률은 52%(60번 중 31차례)로 1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63%)보다 낮다.

게다가 1993년 이후로 범위를 좁히면, 1승 1패에서 2차전 승리 팀이 축배를 든 경우는 13번 중 4번에 불과하다. 월드시리즈 과거 확률은 애틀랜타의 우승을 점친다.

화력에서 애틀랜타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휴스턴 타선이 초반 찬스에서 적시에 터졌다.

휴스턴은 1회말 선두 호세 알투베의 좌선상 2루타에 이은 마이클 브랜틀리의 외야 뜬공, 알렉스 브레그먼의 희생플라이를 묶어 먼저 1점을 뺐다.

애틀랜타가 2회초 트래비스 다노의 좌월 홈런으로 1-1 동점을 이루자 휴스턴은 2회말 넉 점을 뽑아 멀리 달아났다.

1사 후 카일 터커, 율리에스키 구리엘, 호세 시리의 연속 3안타로 1점을 보탰다.

이어진 1, 2루에서 마르틴 말도나도의 좌전 적시타 때 애틀랜타 좌익수 에디 로사리오의 송구 실책을 틈타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아 4-1로 격차를 벌렸다.

애틀랜타 투수 맥스 프리드의 폭투 때 3루에 간 말도나도는 2사에서 브랜틀리의 우전 적시타 때 팀의 5번째 득점을 올렸다.

애틀랜타가 5회 프레디 프리먼의 적시타로 1점을 따라붙자 휴스턴은 6회말 1점을 다시 추가하고 7회말 알투베의 좌월 솔로 홈런으로 승패를 갈랐다.

휴스턴의 멕시코 출신 우완 투수 호세 우르키디는 탈삼진 7개를 곁들여 5이닝을 2점으로 막고 승리를 안았다. /연합뉴스

LA 레이커스 수모…26점 앞서다 대역전패

올 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우승 후보로 꼽히는 LA 레이커스가 26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오클라호마시티(OKC) 선더의 시즌 첫 승 제물이 됐다.

레이커스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의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2021-2022시즌 NBA 정규리그 오클라호마시티와 원정경기에서 115-123으로 패했다.

'킹' 르브론 제임스가 오른 발목 부상으로 2경기 연속 결장한 가운데서도 레이커스는 2쿼터 한 때 26점 차까지 앞서면서 무난히 3연승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후반 들어 급격히 흔들리더니 결국 역전패를 당했다.

레이커스는 1쿼터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12점을 올리는 등 내외곽에서 모두 오클라호마시티를 압도하며 41-19로 앞서나갔다.

2쿼터에서는 벤치 멤버들을 투입하고도 리드를 벌려 70-44까지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후반 들어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샤이 길저스-알렉산더가 3쿼터에만 3점 슛 4개를 포함한 17점을 몰아치며 오클라호마시티의 반격을 이끌었다.

3쿼터 종료 버저와 함께 길저스-알렉산더의 3점포가 림을 가르면서 오클라호마시티가 97-95로 전세를 뒤집었다.

접전을 이어가던 4쿼터 막판 레이커스가 러셀 웨스트브룩과 말리크 몽크의 연속 레이업 득점으로 경기 종료 50여 초를 남기고 115-116까지 따라붙었다.

이후 오클라호마시티가 데릭 페이버스의 레이업으로 3점 차를 만들었고, 레이커스는 이어진 공격에서 웨스트브룩이 던진 회심의 3점 슛이 불발됐다.

상대의 인바운드 패스를 가로챈 카멜로 앤서니가 5.7초를 남기고 시도한 3점 슛은 림 근처에도 가지 못하면서 결국 레이커스는 대역전패의 쓴맛을 봤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2관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3관	듄
4관	아네트, 애프터: 관계의 함정
5관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6관	듄, 보이스
9관	바다 탐험대 옥토넛: 육지수호 대작전 고장난 론
7관 씨네커플	듄, 그림자꽃,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8관 씨네커플	애프터: 관계의 함정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스 용과 주근깨 공주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격돌! 낙서왕국과 얼추 네 명의 용사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블랙스트링 10주년 콘서트 Road of Oasis
일시 : 2021. 11. 20.(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7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